새로운 共同體文化 창출을 위한 제언

張 裳 / 梨花女子大學校總長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일컬어지는경제발전과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룸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외환위기를겪으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국민소득이 급속히 감소했다고하나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은1960년대에 비해 거의 백 배 가량 증가했다. 정치적으로도이전 시대보다는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 공짜점심은 없다 "는 서양의 속담처럼 대가없이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단기간에 이루어진급성장과팽창 위주의 발전은 많은 것을 희생하게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실과 부조리, 분열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다는것이다.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려 들지 않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우리가 경제환란을겪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받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온 우리 사회가 하루아침에총체적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얼까. 우리가 빠른 시간에경제적 성장과 정치발전을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중앙정부의 전통, 근면과 성실, 교육을 강조하는유교문화, 개인보다는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문화때문이라한다. 강한 중앙정부는주도적으로산업정책을수립하여밀어부쳤고, 국민은 이에 열성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아시아의네 마리 용 중의 하나로 떠오를 수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인적 자원밖에없는 나라에서 높은 교육열과 허리띠를 졸라맨 높은 저축률은 경제발전의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집단주의적공동체 문화는 정부와 개인을 연결시키는하나의 매개가 되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획일적 주입식 교육 또한 산업사회가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한바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성공적인산업화를 이끌던 요인들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찾아온 세계화, 정보화, 탈산업화라는 외부환경의변화 때문이다. 국경 없는 세계시장에대비할 만한 탄탄한 경쟁력을 충분

히 갖추지 못했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 사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사회에유연하게 대처하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근대화의원동력이되었던 우리의 장점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되고만 것이다.

레스터 교수가 지적했듯 21세기는 지식 격차가 국가 경쟁력의 격차를 결정하는 시대다.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기업경쟁력과경제 발전에 기여할 지식기반의인적 자원이 풍부한가는한 사회 경쟁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조직이나공동체에서튀는 것을 싫어하는 관행이 있다. 묵묵히 집단에 순응하면서 충직을 다하는 것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받는시대이기때문에 튀는 것이 오히려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다양성, 다원성은 시대적 정신이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우리의 뿌리깊은 평등주의 문화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이나기업체나정부, 학교에서추진하고있는 연봉제, 성과급제에대해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도 평등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연공서열의보수체계에익숙했던우리가 갑작스럽게서구식 경쟁모델에 적응하기란말처럼 쉽지 않다.

유교문화의유산 가운데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뿌리깊은사고는 장유유서(長幼有序)다. 長幼有序는사회 구성원을 연령에 따라 철저히 위계화함으로써매우 편리한 갈등조정의 기능을 수행했다. 연령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평등주의적이다. 누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연장자가되고 발언권과결정권을갖게 된다. 연령에 근거하여 고령자가대접을 받는 사회에서는구태여 이해갈등을조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연장자에게양보한 다음 자신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면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계급사회의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계층적 차이를 용인하지 않는 평등주의적정서는 바로 이러한 연령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던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자연재해를극복하며 생존해야했기에철저한 집단주의적공동체 문화가 필요했다. 연령을 매개로 한 공동체문화는농경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역할을 담당함으로써급속도의경제성장을이룩하는데기여했다. 그것이 특히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성장이급속도로 이루어지는과정에서파이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면서공동체에 충성을 다하면 언젠가는자신의 몫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속도가 둔화되면서구

조조정이불가피하게되고 평생직장의개념이 자취를 감추면서마냥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공동체문화는최근 경쟁개념이확산되면서시대착오적이라는평가 아래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만한새로운 규범이나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거의 권위가 부재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도처에서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공공부문에서는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가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계급 역량의 결집에 따라 부르조아혁명을거치면서 민주주의를쟁취한 서양의 역사와 달리 우리는 급속도의경제성장을겪으면서계층간 유동성도 높았고 시민계급이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규범이 자리를 잡을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 시민계급적기반이 매우 취약한 결과 시민문화가정착되지도않았다. 따라서 과거의 공동체문화를대치할만한새로운 규범이나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개인의 창의력, 다양성, 개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자칫 무질서와혼돈을 초래할 우려마저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이후사회 각 부문의 요구와 목소리는 높아졌지만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쪽에서는 목소리가크거나 실력행사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고있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이들을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몰아 부침으로써문제를 해결하려하지만 어느 것도 바람직한해결책을제시하지는 못한다. 산업사회에서직업간 계층간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일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타협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가필요로 하는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고양하면서도각자 목소리와 이해를 달리하는개인을 하나로 결집시킬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이 시급하다. 새로운 공동체는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에서 시작된다.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시킴으로써공동체를유지했던과거와는 달리 개인을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생명력을 갖는 공동체다. 결국 이 공동체는 민주주의의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는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매도하지 않는다. 서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가운데 창의적인 해결책을도출해내는협상과 타협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하게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 사회구성원간의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사회의도래는 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는다. 누구든지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며자신은 이에 동참하는 최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이기적인 개인과 개인이 충돌하며 실패를 거듭하는 시행착오를거치면서시민사회는성숙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나 자신 먼저 불신이 있는 곳에 진실을 심고, 부실이 있는 곳에 신실성을 심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체는절대 변할 수 없고, 시민의식의성숙 없이 사회의 진보는 요원하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각 구성원이 권력을 동등하게나눠 가짐으로써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집단의 목소리도 무시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성적으로 권력의 소유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있으며 이는 사회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여성의 날에 즈음하여세계은행은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신장한 나라에서는부패가 감소하고경제가 성장했다는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UNDP(유엔개발계획)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성평등지수는30위를 차지했지만여성권한척도에서70개 국가 중 63위를 차지하여 최하위를면치 못하고 있다.

21세기에는여성인력을방치한 채 지식정보화사회에서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 지식기반사회의국가경쟁력은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활용에 달렸다 "고 지적했듯이여성은 신경제 시스템에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하나님은 남과 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창조, 동등한 책임, 동등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불평등, 부조화는 창조질서의섭리에 위배되는죄이다. 21세기 문명은 남성 위주의 문명도 아니고, 여성 위주의 문명도 아닌 남성과 여성이 상생상존해야하는 통합문명이다.

절반의 지혜, 경험, 참여만으로는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성의 지혜, 경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실하고, 투명하고, 풍요롭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적 굴곡을 거쳐오면서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온 한국의 여성은 지혜롭고, 강인하며 공동체를 조화롭게 도덕적으로이끌어가는강한 내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 여성이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벌어지고 있는 계층간 격차, 민주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갈등을극복하고 조화롭고건실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S